

#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 觀點과 그 距離를 中心으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사학 관련 입문서에 대해 불교사료의 집성기, 불교사학의 정초기, 불교사회의 만발기로 분류하였고, 저자의 관점을 불교 내부자의 관점, 유행자적 관점, 외부인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본 글이다.

첫 번째 측면 사회 선정과 그 거리를 보면, 내부자 관점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역사 사료의 액면 그대로와 교학 사상과 고승들의 활동이 주라고 할 수 있고, 유행자의 유추가 설득력이 있었고 다양한 민중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며, 외부인의 관점은 유행자의 관점과 근사했다고 보인다. 내부자의 관점은 긍정적인 측면 위주이고 그림자의 역사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다. 이에 비해 유행자의 관점 사서는 어용승려니 무위도식이니 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

고 있고, 외부인의 관점을 견지하는 사서는 사실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 주체 복원과 그 거리를 보면 내부자 관점의 사서는 지나칠 정도로 고승 위주여서 여성 불자나 민중의 문제는 눈 돌리지 않고 있고, 유행자의 관점은 전직 승려출신과 순수 유행자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였으며, 외부인은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배불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인다.

세 번째 측면 통사 추구와 그 거리를 보면 사서들의 차례를 통해서 보면 사화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한국불교사가 왕조를 뛰어넘어 관통하는 역사로 기술되고 있다고 보이며, 전체 사서들이 국가불교 호국불교로 해석하나 한국불교통사만이 민중불교로 서술하고 있을 뿐인데 대체로 진정한 불교의 유지는 일제와 같은 불교 신앙인들의 신앙행위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불교사 주체들의 역할을 복원하여 온전한 불교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승 대덕의 학문과 선법활동과 같은 거시 담론에 갇혀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땅에서 불교 하는 이들의 삶-신앙의 방식이 다뤄져야 한국불교의 성격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온전한 불교통사는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불교사, 한국불교통사, 민중불교사, 이야기 한국불교사, 유행자의 관점, 김영태, 고영섭, 가마다 시게오

## - 목 차 -

- |                    |                    |
|--------------------|--------------------|
| I. 여는 말 [緒言]       | Ⅲ. 불교사학 입문서의 차이 분석 |
| Ⅱ. 불교사학 입문서의 간행 현황 | 1. 事話 選定과 그 距離     |
| 1. 佛敎史料의 集成期       | 2. 主體 復元과 그 距離     |
| 2. 佛敎史學의 定礎期       | 3. 通史 推究와 그 距離     |
| 3. 佛敎史話의 滿發期       | Ⅳ. 맺는 말 [結語]       |

### I. 여는 말 [緒言]

주지하다시피 사학은 역사를 그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당연히 불교사학의 대상은 불교의 역사이다. 물론 이 글에서 언급하는 불교사학의 대상은 한국불교사이고 한국불교사학의 입문서이다. 그 이상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논자의 한계 밖의 일이다. 이 논의를 다루는 것도 논자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논자는 그동안 한국불교 의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주로 천착해왔다. 그런 까닭에 이 글말에서 논의하는 한국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특징을 올바르게 풀어내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가 논의할 연구 대상을 붙들고 있게 된 것은 한국불교사학이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나름의 물음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의 우리가, 우리 불교가 어떻게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국불교의 역사는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사학 입문서들이 과연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말에서 다룬 한국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은 이미 선학들의 연구 결과 및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들이 다뤄졌으며,<sup>1)</sup> 각 논문들에서 불교사학 입문서에 대해서 분석과 논평을 산출하였다. 그 까닭에 이 글말들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들을 재차 서술하는 것을 피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불교사학 입문서의 서술의 시점과 그 거리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II장의 불교사학 입문서의 간행 현황과 특징은 선학들의 관점을 따르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다. 대한시대<sup>2)</sup>가 시작된 지 1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를 세 시기로 나눠보았다. 첫째는 불교사료 집하기, 둘째는 불교사학 정초기, 셋째는 불교사학 만발기가 그것이다. 각 시기의 주요 입문서를 개괄할 것이다. III장의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특징은 시점 등과 그 거리는 이 글말의 부제를 펼치는 것으로, 이 글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술의 시점 혹은 관점은 곧 불교사학 입문서를 기술한 주체의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시점이라고 하면 흔히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역사 서술의 그것은 내부자의 회고나 외부인의 객관적 관점, 혹은 내외를 넘나들며 본질을 추구하는 유행자의 관점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글말에서 사용되는 시점 혹은 관점(觀點)은 대략

---

1) 이재창, 『불교사의 제분제』, 우리출판사, 1993;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김용태,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황인규, 「한국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서술과 고승」,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2) 한국불교사 시대를 사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시대로 하는 고영섭의 시대 구분에 의거하여 '대한시대'를 따른다. 고영섭, 『한국불교사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11.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정통 불학자의 관점으로 기술한 내부자적인 관점이고, 둘째는 내부자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지만 비교적 관찰자 입장을 견지하는 유행자적인 관점이며, 셋째는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국불교사학 입문서를 서술한 관점이다. 이 세 관점이 온전한 분류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황당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자가 이와 같이 한국불교사학 입문서 분류의 관점을 파악한 것은 각 입문서에 그 같은 관점이 서술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인물과 사료의 선정과 접근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지, 또 사가들은 누구나 통사(通史)의 완성을 희망하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교 역사의 주체 복원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말의 취지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사학 입문서를 살펴보는 이 글말은 불교도의 자기 정체성 찾기와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사학 입문서의 간행 현황과 특징을 통해 불교사학 입문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글말을 시작하고자 한다.

## II. 불교사학 입문서의 간행 현황

‘불교역사’라고 하면 범위가 넓다. 일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일반불교사를 필두로 문화사, 사상사, 미술사, 음악사 신앙의 역사 등 한정하기가 어렵다. 이 글말은 일반불교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불교사학 입문서를 최대한 섭렵하는 것이 일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문헌에서부터 생소한 저자의 것들도 적지 않다.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입문서가 나온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

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불교 관련 사료를 모으는 시기로 집성기(集成期)라고 칭하고자 한다. 191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초기 불교사서들은 자료집 성격이 짙다. 다음은 불교사학의 정초가 다져지는 시기(定礎期)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사료를 정밀 분석하여 평가를 하여 본격적으로 불교사를 기술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편의상 불교사학 정초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불교사학 정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시작되며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초기의 불교사학 입문서를 순수 불교사서류인 통사서와 불교사학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불교사의 제 문제를 비롯하여<sup>3)</sup> 한국불교사 연구 및 각 시대별 불교 연구사가 물밑듯이 등장하였다. 불교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2012년 한국불교사 전문학회지 『한국불교사연구』 제1호가 창간되었다. 이 학회지는 현재 제14호까지 발행되고 있다.<sup>4)</sup> 아울러 불교 원천 사료를 비롯하여 새롭게 발견되거나 형성되는 사료를 담은 자료집 또한 간행되고 있다. 불교사학 입문서의 정초기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한 세대가 지나기 시작하는 1980년대 후반이 되면 불교사화(佛敎史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불교사화는 불교사 이야기책, 만화 형식으로 나타난다. 불교사를 수놓은 고승 등 인물이나 불교역사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불교사에 대한 친근감을 돋워 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잡지 등에 연재한 것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만화 형식 등이 채택되고 있으며, 인쇄 편집기술의 발달로 원색 사진이나 삽화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불교사학 입문서로 각 종파들이 자종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의 종사를 편찬 간행하기 시작한다. 2001년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조계

3) 이재창, 『한국불교사의 제 문제』, 우리출판사, 1993.

4)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 제1호, 한국불교사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8.

종사 근현대편』을 내놓자 한국불교태고종에서도 『태고종사』를 간행하였다. 간행 초기 내용으로 조계종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2010년 천태종에서 『한국천태종사』를 내놓았다. 그동안 한국불교사의 대표적 통사류에 대한 검토가 〈한국불교사 통사류 목록〉으로 조사 연구되었다.<sup>5)</sup> 이 목록에는 국내 저자 11인의 19종의 통사류와 일본인 저자 6종, 중국·러시아·미국인 저자에 의한 한국불교사 통사서가 소개되고 있다. 이 목록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세 시기에 간행된 불교사학 입문서를 개관해보도록 하자.

### 1. 佛敎史料의 集成期

불교 관련 사료를 모으고 불교사서가 성립되는 집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때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사학 입문서와 사료집은 아래의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

權相老, 『朝鮮佛敎略史』, 1917(보림각 영인본, 1972).

프레데릭 스타(미국), 『Korean Buddhism』, Forgotten Books, 1918.

金海隱, 『조선불교사대강: 조선불교종파변천사론』, 송광사지방학림, 1920.

權相老, 『朝鮮佛敎史概說』, 불교시보사, 1939.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신문관, 1918.

高橋亨, 『李朝佛敎』, 1929.

忽滑谷快天, 『朝鮮禪敎史』, 1930. 1978년 보림각에서 역서 발행.

---

5)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한국불교사연구』 1(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pp.16~21.

金暎遂, 『조선불교사고』, 중앙불전, 1932; 1939.

江田俊雄·權相老, 『李朝實錄佛教抄存』, 1934.

흩어져 있는 불교사 관련 자료를 집성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불교 불교교육기관의 교재에 대한 수요에서 시작되었다. 1917년 권상로가 각 사원의 지방학림의 교과서로 사용하고자<sup>6)</sup> 『조선불교약사』를 간행한 것이 그 예이다. 기년(紀年)적으로 편집하고 계통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한계라고 편자는 밝히고 있다. 제1편 삼국시대 175화, 제2편 고려 불교 136화, 제3편 조선불교로 대분류하고, 각 175화, 136화, 239화와 부록으로 제종중요, 불조약계, 편중인명고, 조선역대약계의 4편 328쪽 내려 쓰기 활자본으로 이뤄졌다.

이능화의 『조선불교사』는 1918년에 간행되었지만 자서나 총독부 내 무부장관의 서문에 의하면 1916년 불성도일 이전, 또는 1917년 3월 이전에 편집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례 16항목에 걸쳐 편집방식을 밝히고 있는데, 상편은 편년, 중편은 종파, 하편은 잡항(雜項)으로 구성되었고, 124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불교사서이다. ‘불화시처’로 시작하는 『조선 불교통사』는 육당 최남선이 교열하고 있다. 불기 순서로 왕호와 연대 그리고 사료의 사실을 제시한 다음 ‘참고’ 또는 ‘비고’, ‘안(按: 살펴보건대)’ 등을 한 글자 들여쓰기 방식으로 역사적 참고 사실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또 자신의 견해를 ‘상현왈’이라고 하여 덧붙여 설명한다. 순한문으로 집필되었지만 하편의 사찰령 기사는 국한문 혼용으로 인용되고 있다.

다카하시 도오루의 『李朝佛教』는 조선사상대계 제1책으로 기획된 것으로 조선사상사로서 이조불교라고 할 수 있다. 목차 21쪽 본문 1062쪽의 책으로 불교사학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불교전반을 서술하고 있

---

6) 權相老, 『朝鮮佛教略史』(1917, 보련각 영인본, 1972), p.2.



다. ‘제1편 국초의 불교’는 성종시대까지, ‘제2편 이조불교 제2기’는 인조 시대까지를, ‘제3편 이조불교 제3기’는 편양언기 문과에서 당시 최근의 불교까지를 다룬 다음, ‘제4편 이조불교여설’은 토지소유권과 승직의 변천, 승려수계와 조선사찰 연구로 짜여 있다. 『朝鮮禪教史』는 佛山快天이 해동에서 禪道가 변쇠한 원인을 진술하고자 한다며 1929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이르도록 조선의 모든 본산을 사적과 사찰 현황을 답사하고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간행에는 서울의 정광진 화상과 불교 주필 권상으로 화상의 원조와 고교형 씨와 이능화 씨 등의 지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sup>7)</sup> 이 가운데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는 한국불교전사를 다룬 최초의 한국불교사라고 불린다.<sup>8)</sup>

## 2. 佛敎史學의 定礎期

1945년 일제 강점기가 끝났지만 한국불교사학 입문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이 더 지난 뒤라고 보인다. 불교사학의 정초기에 등장하는 입문서의 시작으로 1968년 禹貞相·金煥泰의 共著 『韓國佛敎史』는 해방 후 간행한 한국불교사의 첫 개설서라고 알려져 있다.<sup>9)</sup> 해방 공간과 육이오 전쟁 때문인지 불교사학 연구가 일천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초를 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불교사학 입문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사학 정초기의 특징은 불교사학 연구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집성기인 일제 강점기 때와 달리 불교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불교사가 쓰

7) 忽湍谷快天, 『朝鮮禪教史』(1930. 1978년 보림각에서 역서 발행), pp.14-15.

8)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25.

9)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28.

이고 불교사학 연구가 주도되었다. 불교사학 정초기 전반은 통사서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불교사학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사 증가와 함께 불교사료 집성의지가 드러나고 그 성과도 나타난다. 수집 자료들을 통사서와 연구서, 사료서로 나누고 이를 간행연도별로 정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통사서

- 禹貞相·金煥泰 共著, 『韓國佛教史』, 新興出版社, 1969.<sup>10)</sup>  
 안계현·김영태, 『한국불교사』 고대편·이조근대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1979.  
 조명기, 『한국불교사상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5.  
 愛宕顯昌 著, 『韓國佛教史: 韓國佛教のてびき』, 東京: 山喜房佛書林, 昭和57[1982].  
 조명기, 『불교문화사』, 동국대출판부, 1984.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禪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史』, 京都: 禪文化研究所, 1987.  
 鎌田茂雄, 『朝鮮佛教史』, 동경대학출판부, 1987; 역서, 민족사, 1988.  
 鎌田茂雄, 『신라불교사서설』,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1988.  
 김현산, 『일제하 한국불교사』, 서울대치과대학 불교학학회, 1988.  
 볼코프(러시아), 『한국고대불교사』, 서울대출판부, 1988.  
 정의행, 『한국불교통사』, 한마당, 1991.9.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5.

---

10) 이 책의 인쇄일은 1968년이고, 출판일은 1969년으로 되어 있다. “禹貞相·金煥泰 共著, 『韓國佛教史』, 서울: 進修堂, 1969”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지 못했다.

- 김경집, 『한국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 박노자, 『한국고대불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정태혁,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2002.
- 고영섭, 『한국불학사』 신라·고려시대편, 연기사, 1999.
- 고영섭, 『한국불학사』 신라시대편, 연기사, 2002; 2005.
- 고영섭, 『한국불학사』 고려시대편, 연기사, 2002; 2005.
- 정동주, 『부처, 통곡하다: 조선 오백년 불교 탄압사』, 이룸, 2003.  
505쪽
- 고영섭, 『한국불학사』 조선·대한시대편, 연기사, 2005.
-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관리처 편, 『중국언론, 申報에 그려진 한국  
근현대사』, 역사공간, 2005.
- 河勁松, 『韓國佛敎史』 上·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542  
쪽. 377쪽.

## 2) 연구서

- 李載丙, 『조선불교통교사론』, 봉선사 원효원, 1946.
- 李載丙, 『朝鮮佛敎史之研究』, 동계문화연구사, 1946.
- 禹貞相·金煥泰 共著, 『韓國佛敎史年表』, 신흥출판사, 1976.
- 安啓賢, 『韓國佛敎史研究』, 서울: 同和出版社, 1982.
-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서울: 현음사, 1983.
-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88.
- 불교사학회 편,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1988.
-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출판부, 1989.
- 高翊晉 等著, 『初期韓國佛敎教團史研究』, 민족사, 1992.
- 이재창, 『한국불교사의 제 문제』, 우리출판사, 1993.
-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1994.

- 정광호, 『近代韓日佛敎關係史研究: 日本의 植民地政策과 관련하여』, 인하대출판부, 1994.
- 허홍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1996.
- 김영태, 『한국불교사정론: 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불지사, 1997.
-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1999.
- 김복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상·하, 2004.
-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2011.
- 고영섭, 『한국불교사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11.
-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11.
- 지원, 『고려 전기 불교사 연구』, 초롱, 2013.
- 최병헌, 『한국불교사 연구 입문』 상·하, (주)지식산업사, 2013.
- 김순석,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4.
- 고영섭, 『한국불교사 탐구』, 박문사, 2015.
-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 고영섭, 『한국불교사 궁구』 1, 씨아이알, 2019.3.
- 고영섭, 『한국불교사 궁구』 2, 씨아이알, 2019.4.

### 3) 사료서

- 삼보학회 편, 『韓國佛敎最近百年史』 1~5, 서울: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1985.
- 박세민 편,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I~IV, 삼성암, 1993.

- 삼보학회 편, 『韓國近世佛敎百年史』 1·2, 민족사, 1994.
- 河村道器, 『朝鮮佛敎史』 資料篇 1·2, 大阪: 楞伽林, 1995.
- 불교사학연구소 편, 『韓國 現代 佛敎史 日誌』, 중앙승가대학, 1995.
- 김광식·이철교,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1~68, 민족사, 1996.
- 韓國佛敎近現代史硏究會 編,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 近現代史』  
上·下, 善友道場 韓國佛敎近現代史硏究會, 1995.
- 김광식 글·윤창화 사진, 『1900~1999 한국불교 백년』, 민족사, 2000.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한국근현대 불교사 연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0; 2001.
-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2002.
- 박광연 외, 『동아시아한국불교사료(중국문헌 편)』, 동국대학교 출판  
부, 2014.
- 김영태, 『동아시아한국불교사료(일본문헌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불교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곧 통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사  
류를 기술하고자 하면 사가들의 시대구분 방법과 역사서술 문법 사관과  
주제, 주제와 쟁점, 사건과 제도, 학통과 인물 등에 관한 깊은 인식 아래  
기술되어야 한다.<sup>11)</sup> 그렇지만 현재까지 기술된 한국불교사가 그 같은 조  
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동의하는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사회류 불교사 기술자들조차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10여 명의 학자들이 현재에도 왕성하게 한국불교사 연구에 참여하

11)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7.

12)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불광출판사, 2018), p.11.

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근대불교사의 김광식과 한국불교사 전반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고영섭이 돋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시간적으로 해방 이후 60여 년이 흐르고 있고 다양한 연구서와 사료들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수준 높은 통사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근현대 불교 사료를 집성하는 작업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김광식 이철교에 의해 집성된 영인본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68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승가대, 조계종교육원, 선우도량, 동국대출판부 등도 사료집성 성과를 내놓고 있다. 보통사와 연구서 중심의 불교사학 입문서와 조금 달리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다음에 제시할 불교사학 입문서의 만발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 시대에 출현한 한국불교사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3. 佛敎史話의 滿發期

불교사학의 만발기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전통사서의 대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중심의 사회는 사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등장하였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편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는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주로 인물 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설명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들의 특징은 읽기 쉬운 문체를 택하고 있고, 비교적 저명한 이들이 필자로 나서고 있어 일반 불교사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한편 사회라고 할 수는

---

13)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도서 판매 지수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텐데, 2019.11.1. 인터넷 Yes24에서 '한국불교사'로 검색하면,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개정판)이 462, 최병현의 『한국불교사연구입문』 하가 90, 고영섭의 『한국불교사궁구』 2가 42, 고영섭의 『한국불교사궁구』 1이 42, 『이복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가 72의

없지만 종단 불교가 성행하면서 각 종단의 종지와 종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단들이 종단사서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은 21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종단의 세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일화나 인물 중심의 이야기와 유력 종단의 종단사서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1967년도 시작된 불교 군중의 역사를 정리한 군중사도 한국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 1) 史話逸話 史書

- 정우홍, 『한국불교사화』, 통문관, 1965. (1934년 매일신보 연재분)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0.  
 정의행,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밀알, 1994.9.  
 김현준, 『이야기 한국불교사』 I, 효림, 1994.10.  
 임혜봉,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김상현, 『한국불교사산책』, 우리출판사, 1995.  
 중앙승가대승가대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중앙승가대 승가대신문사, 2000.

---

지수를 보이고 있고, 알라딘에는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가 581, 최병헌의 『한국불교사연구입문』 상이 311, 최병헌의 『한국불교사연구입문』 하가 196, 가마타 시게오의 『한국불교사』가 143, 조계종포교원의 『한국불교사』가 113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또 알라딘에서 '불교사'라고 검색하면 자현의 『불교사 100장면』이 1,551, 법륜의 『실천적 불교사상』,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간행위원회에서 편찬한 『불교사상의 이해』가 940, 포교원의 『불교사의 이해』가 824, 김미숙의 『인도불교사』가 625의 지수를 보이고 있고, Yes24에는 자현의 『불교사 100장면』이 3,468, 법륜의 『실천적 불교사상』이 1,116,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가 462, 서인원의 『청소년을 위한 우리 불교사』가 414,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의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가 300, 김미숙의 『인도불교사』가 180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김정빈, 최병용 그림, 『인물불교사』, 책이있는마을, 2001/2002.  
 불교텔레비전, 『(人物로 본)韓國佛敎 1600年史』상·하, 불교텔레비전, 2002.  
 이이화, 『역사 속의 한국불교』, 역사비평사, 2002.  
 김경집, 『역사로 읽는 한국불교』, 정우서적, 2008.  
 황원갑, 『인물한국불교사 고승과 명찰』, 바움, 2010.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 불광출판사, 2018.  
 서인원·송치중·이은령·강승호, 『청소년을 위한 우리 불교사』, 종이와나무, 2018.  
 자현, 『자현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2018.

## 2) 宗團宗旨 史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1.  
 昌均大眼 編著, 『한국불교사』, 대한불교열반종, 2002. 일본어.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 고증세편』, 조계종출판사, 2004.  
 종단사간행위원회, 『한국불교 정통 종단의 역사 太古宗史』, 한국불교출판부, 2006; 2014.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한국천태종사』, 대한불교천태종 출판부, 201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2011.  
 함현준, 『불교군종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018.

불교사회의 만발기라고 해서 특정 시기 이후의 것으로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시되고 있는 입문서들은 대체로 1990년 이후의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발기의 특징은 많지는 않지만 필자들이 순수 사학 연구자보다 재야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통 사학자와 재



야 사학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불교학 또는 불교사를 전공하는 학자도 있지만 불교학 내지 주변학자들이 불교사와 그 인물을 새로운 각도로 기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통 불교사학자들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불교사를 다루고 대중친화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불교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지라도 인터넷 판매지수가 여타의 불교사보다 사회의 형식인 만발기의 불교사학 입문서들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종단의 발전과 자종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종단역사서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종단의 역사서들은 대개 편찬위원회 형식으로 집필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집필하려고 하지만 문체와 사관의 일관성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고대의 역사사건이나 인물을 자종과 연관 지으려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III. 불교사학 입문서의 차이 분석: 관점과 그 거리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가 1917년 한국불교사학의 입문서로 등장한 이래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불교사를 주창하고 등장한 불교사학 입문서는 40여 종, 연구서와 자료집까지를 합하면 90여 종이 넘는다. 그 모든 것들이 한국불교 전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대사이드 전사이드 한국불교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를 쓰는 이들을 사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사가에게 요청되는 것은 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주체와 사건을 정렬하며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 지식의 집적체로서 통사를 기술하고자 하면 기술방법과 문법에 대한 깊은 인식 아래 업설 또는 연기설 혹은 중도 사관의

확고한 정립과 사부대중의 주체 확립, 그리고 인간 이해와 세계 인식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와 쟁점의 확보 등 몇몇 문제들을 의식하며 집필해야 할 것이다.<sup>14)</sup> 해서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체를 다루기 위해 서술의 특징과 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거나<sup>15)</sup>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을 찾아보기도 한다.<sup>16)</sup> 통사를 기술하려는 의도와 달리 그 성과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글말에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몇몇 주요 한국불교사학 입문서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기준으로 사가의 입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사가의 입지는 전통 불교사학자인지 주변학자인지가 아니면 외부자인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부자, 외부인, 경계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부자는 한국불교인으로서 주로 불교사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지칭한다. 외부인은 비한국인 내지 비불교인으로 한국불교사를 객관적 관점으로 한국불교사를 기술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경계인은 자신의 정체를 한국불교의 내부자로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유행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분류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양비론적 관점으로 구별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확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대다수 불교사학 입문서는 내부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상로를 필두로 해서 최근의 자현의 입문서까지가 그렇다. 내부자의 입문서는 아무래도 비판이 실종된<sup>17)</sup> 종합적인 관점이 유지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불교 밖에서 한국불

14)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7.

15) 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체」, 2012.

16) 김용태,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 2012.

17) 김용태,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 p.124.

교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이들의 시각은 내부의 시각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유행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통사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외부인의 관점 이상으로 자기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의행, 임혜봉, 이이화 등의 입문서에서 희미하나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 장에서 비교해 볼 대상은 전통적인 내부자 관점의 한국 불교사와 외부자 내지 유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건과 일화 및 그 거리’, ‘주체 복원에 관한 관점과 그 거리’, ‘통사 추구와 그 거리’를 중심으로 불교사학 입문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내부자 관점의 입문서로 김영태의 한국불교사(㉔)<sup>18)</sup>와 조계종포교원의 한국불교사(㉕)<sup>19)</sup>, 유행자의 관점으로 정의행의 한국불교통사(㉖)<sup>20)</sup>,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㉗)<sup>21)</sup>, 외부자 관점으로는 가마타 시게오의 한국불교사(㉘)<sup>22)</sup>를 주로 하고, 자현의 불교사 100장면(㉙)<sup>23)</sup>, 임혜봉의 불교사 100장면(㉚)<sup>24)</sup>을 보조 대상으로 삼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타 입문서 내지 연구서와 사료서도 참고하겠다.

## 1. 사화 선정과 그 거리

사기는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을 통사의 마디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화 선정

18)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5.

19)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2011.

20) 정의행, 『한국불교통사』, 한마당, 1991.9.

21)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 불광출판사, 2018.

22) 鎌田茂雄, 신현숙 역, 『한국불교사』, 민족사, 1988.

23) 자현, 『자현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2018.

24) 임혜봉,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을 살펴보기 이전에 주요 한국불교사의 시대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목차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 1-㉠: 첫째편 초기불교의 국가적 수용과 전개, 둘째편 민족불교의 완성, 셋째편 祈攘적 경향의 불교, 넷째편 山僧시대의 불교, 다섯째편 開化 격동기의 불교
- 1-㉡: 제1부 삼국시대의 불교 수용, 제2부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제3부 선의 전래와 조계종의 성립, 제4부 고려시대의 불교와 조계종, 제5부 조선시대의 불교 제6부 근현대불교와 대한불교 조계종
- 1-㉢: 제1장 우리 나라의 불교 수용과 초기불교의 성격, 제2장 삼국시대의 불교, 제3장 남북국시대의 불교, 제4장 고려시대의 불교, 제5장 조선왕조시대의 불교
- 1-㉣: 제1부 불교의 전래, 제2부 화려한 신라의 불교사상, 제3부 갈등과 새 바람, 제4부 불교정치술, 제5부 반성하는 불교, 제6부 팔만대장경의 힘, 제7부 불교와 성리학, 제8부 불교는 이단이다, 제9부 불교정책의 이중성, 제10부 호국불교와 민중불교, 제11부 승려의 자유와 실천, 제12부 식민지 시기 불교와 해방 이후의 불교
- 1-㉤: 제1장 고대 삼국의 불교, 제2장 통일신라의 불교, 제3장 고려의 불교, 제4장 조선의 불교, 제5장 현대 한국의 불교

세 가지 관점의 다섯 종류 불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대구분 혹은 분장은 5장 또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의 경우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을 수용하지 않고 불교의 흐름에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관점의 차이에는 불교의 전래와 수용이

라고 할 수 있다. 내부자의 관점을 견지하는 ㉔·㉕와 유행자적 관점이 견지되고 있는 ㉖·㉗는 '수용'이라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기술된다. 하지만 외부인의 관점이 견지되는 ㉘에는 '전래'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또 '민중'이나 '남북국' 개념 사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부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데서는 두 개념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유행자적 관점이나 외부인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곳에는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국 개념은 유행자적인 관점을 취하는 곳에서 택하고 있고, 내부자 관점의 ㉕는 발해를 통일신라와 병립하는 시대로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내부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㉔에서 조선시대를 '산승'시대라고 하고 있으나 유행자적 관점의 ㉘에는 '왕조'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산승과 왕조는 대척되는 두 세력의 위치를 분명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쪽은 왕조에 의해 물러난 산을 강조하고 있고, 한 쪽은 가해자의 왕조를 드러내면서 시대에 대한 역사적 저항을 표면화하고 있다. 외부인의 관점을 견지하는 ㉘에는 두 개념은 고스란히 숨어버리고 오로지 관찰자의 시점으로만 조선을 바라보고 있다. 세 향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왕의 불교정책, 고승의 활약, 교단제도의 변천이 그것이다. 당시의 시대를 나타난 상황대로 파악하려는 안목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장편목이나 항목 등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내부자의 관점은 지나치게 정책이나 교학·고승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종교적 현상에 대한 취급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진정한 불교사라고 칭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불교사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불교 수용 가운데 가장 자료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백제의 불교 수용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 2-㉔: 삼국사기와 유사 해동고승전의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여 전하고 있다.
- 2-㉕: 384년 9월 남중국 동진에서 인도승 마라난타가 전라도 영광 법성포로 들어왔다. 법성이란 이름은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란 데서 유래한다.
- 2-㉖: 사기와 유사 승전의 기록을 전하면서도 백제 왕이 교외에까지 나가 맞아들일 정도라면 공식적인 문화교류사절과 같은 지위라고 보고 있다.
- 2-㉗: 동진의 효무제는 백제에서 불교 수용의 의사를 보이자 망설이지 않고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를 보냈다. 전진과 경쟁하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마라난타가 바다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오자 침류왕은 교외로 마중 나가 맞이했으며 궁중에 모시고 공경히 공양했다.<sup>25)</sup>
- 2-㉘: 384년 마라난타가 전한 불교

㉔는 사서의 기사를 그대로 기재하고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는 ㉕는 마라난타 도래지인 법성포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현재적 관점인지 전설에 의거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서나 설명에도 법성포로 마라난타가 들어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마라난타가 백제로 오게 된 연유에 대해 ㉖는 유추하고, ㉗는 백제가 고구려를 질투하여 불법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불교를 전래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㉖·㉗의 설명은 ㉔의 유추와 비교된다.

25)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 p.47.

고구려 불교전래에는 전진왕이 사신과 더불어 보낸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마라난타는 동진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 온 한 사람의 외국승에 불과하였다. 국가적인 사절도 아닌 한 사람의 거무스레한 외국승이 들어온 것을 한 나라의 왕이 몸소 교외에까지 나가 맞이하여 궁중에 있게 하고 예경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 왕이 불교를 갈망하지 않았다면 어찌 낯선 외국 스님을 궁중으로 맞이하여 예경하며 그 가르침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이다.<sup>26)</sup>

㉔의 위 유추보다 ㉔의 유추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㉔의 유추대로 ‘거무스레한 외국승’을 맞이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아직 불교도 들어오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불교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은 ㉔이 유추하듯이 고구려와의 경쟁으로 인해 불교의 도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를 더욱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회 선정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불교가 국가적으로 수용되고 국교적인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인간 삶처럼 불교 수행자들이 불교도 본연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서 볼 때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지극히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통일신라 후기와 고려 후기에서 언급된다. 이에 대해서 불교사 사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서술되는 내용 전부를 보지 않아도 사가가 서 있는 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

26) 김영태, 『한국불교사』, pp.37-38.

- 3-㉔: 선법이 전래되는 시기의 불교 현상에 대해서는 당시 신라에는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魔說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또 고려 후기 불교계에 대해서는 절항으로 ‘여러 가지 불사와 교단의 문란’ 정도로 부드럽게 서술하고 있다.
- 3-㉕: 신라 후기 선의 전래 시대에 “당시 신라는 왕실과 귀족들의 부패로 혼란이 극심해 ~ 교학불교도 정치세력화되어 불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대중에게 멀어졌으며, 활력을 상실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고려 후기 불교의 타락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3-㉖: 항목 ‘신라 불교의 타락과 선종의 수용’이라고 하며 신라 불교의 타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 초기 불교에 대해서는 ‘왕실의 기복불교와 승려의 타락’을 지적하며, 고려 후기 불교에 대해서는 신진사대부 세력의 불교 비판의 관점에서 불교타락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3-㉗: 항목으로 ‘타락하는 승려, 뒤로 부는 새 바람’이라고 하며 당시 불교사회를 규명하고 있으며, 고려 중기 불교계에 대해 ‘승려들이 장사를 벌이다’라고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후기 불교계에 대해서는 ‘불교의 침체와 성리학의 부상’이라고 하여 불교계가 외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 3-㉘: 신라 후기 선종 전래 시기를 화엄·법상 등 교학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정도로 서술하고 있으며, 고려 후기 불교계 상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㉔에는 교학과 사상, 고승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불교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교



단의 문란이라고 하지만 기양의례가 지나친 점만을 부각하고 교단 일부의 타락을 한 두 문단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sup>27)</sup> 그에 비해 ⑥에는 귀족의 부패로 불교계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여 불교의 타락이 아닌 외부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 ⑦에는 불교의 타락과 선종의 수용을 항목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고려 초기는 기복불교로 불교가 타락하게 되고 후기에는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불교의 타락이 언급되었다고 보고 있다. ⑧ 신라 후기와 고려 중기 시대에 불교의 타락상을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고려 후기 불교계는 ‘불교의 침체와 성리학의 부상’이라고 하여 타락보다 불교의 침체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외부인의 관찰에는 불교의 타락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인지 가치가 없어 다루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불교의 타락이라는 사회가 다뤄지지 않고도 있다.

시대 구분과 두 사례로 세 관점을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부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경우는 전해지고 있는 사료에 충실하려고<sup>28)</sup> 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는 내부자 위주의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유행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경우에는 해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으며, 외부인의 관점이 견지되는 사서는 사실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주체 복원과 그 거리 인물과 민중불교의 구현과 그 거리

불교가 사부대중으로 구성되고, 한국불교사가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27) 김영태, 『한국불교사』, pp.221~222.

28) 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체」, pp.83~84. “근거 없는 史實과 확실성 없는 학설은 모두 배제하고”를 재인용.

이래 1,70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불교계가 걸어온 발자취라고 한다 면<sup>29)</sup> 한국불교사의 주역은 당연히 사부대중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 불교사에서 다뤄지는 인물들은 출가자 비구·고승이지 사부대중이 아니다.<sup>30)</sup>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다. 역사를 이끄는 존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장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체들은 사부대 중으로 유명 무명의 한국불교인들이다. 실제 한국불교사에서 이들이 어 떻게 기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량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비구 고승 이외의 이름 없는 출가 재가의 불교인들로 광덕 부 부, 염불 서승한 옥면비, 조선 정업원의 니승 등 여성 불자와 민중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조선 초의 장원심 등에 한국불교사에서는 어떻게 기술하 고 있는지 세 관점의 사서를 훑어보자.

먼저 한국불교의 여성 불자에 대한 기록이다.

- 4-㉔: 편 장 절 항의 제목에 등장하는 여성은 문정대비에 불과하며 교단의 부흥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음.
- 4-㉕: 선덕여왕과 승만 부인, 마야 부인 등 여성 불자를 간략히 다루 고 있고, '여러 신앙의 유형'에서 신라 정토신앙의 주역이 되는 광덕 부부 가운데 광덕과 여종 옥면도 현생의 몸으로 서방 왕 생정토를 언급하고 있으며, '명종대의 부흥과 순교승 보우' 항 목에서 명종대의 불교 부흥을 다루며 문정대비의 돈독한 신심 이 언급되고 있음.

29) 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체」, p.69.

30)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39.

- 4-㉔: 광덕 부부와 엄장의 정토 신앙을 언급하며 광덕의 부인을 다루고 있고, 해방된 여성 육면 향에서 그의 신행을 소상히 다루고 있으며, 조선 '명종 때의 불교 부흥과 개혁'을 다루면서 문정왕후의 일방적인 신심이라고 하지 않고 불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불교의 숨통을 더 준 것으로 보고 있음.
- 4-㉕: 신라 정토 신앙을 소개하면서도 광덕의 부부나 육면 비에 대한 기사를 어느 계집종이 씬 없이 염불한 끝에 정토로 현신했다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문정 왕후의 승과 부활이라고 하여 여성 정치가로 문정 왕후를 다루면서도 그의 업적이 후대에 한국불교의 부활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승과의 부활'에 방점을 찍고 있음.
- 4-㉖: 보우가 문정 왕후에게 접근하여 교단의 세력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함으로써 문정 왕후의 주도성을 놓치고 있음.

한국불교사학 입문서에는 전반적으로 여성 불자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미약하다. 왕조와 고승과 학문이나 선법 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 불자의 주도적인 면은 잘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단행본의 한계라고 하지만 ㉔의 경우 원효의 저서를 몇 쪽에서 언급하며 쪽을 할당하고 있지만 사중이나 민중의 정토신앙 언급이 지극히 적다. 유행자의 관점을 다루고 있는 두 종의 입문서의 사가는 ㉔의 저자는 전직 승려로서 유행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㉕의 저자는 전적인 유행자라고 보인다. 그것이 같은 기사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㉕는 한국불교사를 다룬 39항목 가운데 '정반왕과 마야부인이 다스리는 나라'와 '문정왕후의 불교후원과 허웅 보우의 불교 중흥' 두 항목에서 여성 불자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민중불교는 민중들이 하는 불교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교화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명제를 전제한다면 민중 일천제까지도 교화의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불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민중불교라고 하면 혜공 혜숙이 언급되고 조선 초기 장원심 등이 언급되며 갑오농민전쟁 시기 미륵신앙과 함께 민중불교운동이 언급된다. 민중불교라는 항목을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기술되고 있을까.

- 5-㉔: ‘일반서민의 교화’이라는 항목 아래 혜숙과 혜공, 대안과 원효를 다루고 있으며, 조선 초기 민중불교 실천들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5-㉕: 민중불교적인 서술은 찾아지지 않음.
- 5-㉖: ‘신라의 민중불교’ 실천자들로 불속에 편 연꽃, 혜숙과 혜공, 민중 속의 성자 대안과 사복, 부설거사의 재가성도를 다루고 있으며, 조선 초기 민중불교 실천자로 민중복지활동을 한 장원심과 자비, 민중과 더불어 산 이름 없는 승려들, 민중 의료 활동을 한 승려들, 민중 복지 활동을 한 해선에 대해 각각 6쪽을 할당하여 서술하고 있음.
- 5-㉗: 제12부 59장 가운데 ‘민중’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민중 속으로 퍼진 정토·약사·관음신앙’과 ‘미륵 현세를 열망한 민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중에 불교를 전한 이들보다 민중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음.
- 5-㉘: 혜숙과 혜공, 대안 및 원효를 민중불교의 담당자로 평하고 있음.

내부자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할 수 있는 ㉔·㉕에는 ‘민중’이라는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 민중은 일반적으로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가리킨다. 민중의 개념은 역사를 창조해왔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배층에 의해서 억압되어온 사람들을 민중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근대사회 이후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억압되고 훼손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보인 사람들을 민중으로 보는 시각까지 다양하다.<sup>31)</sup> ㉔·㉕와 달리 ㉖·㉗·㉘에는 민중이라는 항목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한국불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불교사의 주체 복원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왕가나 고승 위주의 불교서술이 갖는 한계임을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다. 민중 불교 개념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는 ㉙는 민중불교를 한국불교사에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다. 검단이 꿈꾼 민중의 낙토-검단의 선운사 창건, 신라 민중 불교의 전개-혜숙·혜공·대안·사복·부설거사, 민중을 배신한 지도자, 대몽항쟁과 민중불교의 항쟁-대몽항쟁에 참여한 승려들, 조선 초 민중 속의 승려들, 민중 속의 성자-계율에 얽매이지 않은 민중승려 진묵, 실패한 민중불교운동-승려 여환의 미륵혁명운동, 조선 최대의 민중불교혁명-장길산과 민중불교혁명 등에서 민중불교를 다루고 있다.<sup>32)</sup> 미륵을 사칭했지만 여환의 운동을 불교의 민중이라고 봐야하는지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이는 유행자적인 관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유지하던 간에 진정한 한국불교사의 주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억불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하거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든 기간에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사라지거나 응전하여 극복하

3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2211a>

32) 임혜봉,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pp.245-248.

면 살아남게 된다. 한국불교는 조선의 억불정책을 살아남았다. 그것이 응전을 잘해서인지 한국불교계의 신앙심인지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태종 세종 성종 연산군 중종조의 100여년에 걸친 불교탄압에 불교계가 대응하거나 항거한 일은 의외로 많지 못하다. 이에 대한 서술들을 살펴보자.

- 6-㉓: ‘개국초의 불교계’ 항에서 ‘기화의 현정’이라고 하여 유자들의 배불사론을 논파하고 불교의 정의를 드러내고자 찬술한 것으로 견잡을 수 없는 배불의 기세에 맞서서 불교의 참모습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하고, 성민이 누차의 호소와 수백명의 승도와 함께 신문고를 쳐서 척불정책 완화와 사원의 복구를 호소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음.
- 6-㉔: 태종 세종 성종 시대의 불교탄압을 다루면서도 저항은 언급하지 않고, 고승의 활동 항목에서 기화는 불교비판에 대해 불교의 논리가 유교와 다르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고 서술하는 정도로 그침.
- 6-㉕: ‘태종 시대의 불교탄압과 불교의 대응’에서 태종 1406년 승려 성민 등이 신문고를 올린 기사와 기화의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을 지어 불교배척론에 반론을 제기하였고, 한편 염불결사를 조직하여 대중 속에 정토 신앙을 퍼뜨려 유불융합사상과 더불어 불교를 옹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음.
- 6-㉖: 함허 기화의 현정론은 불교 비판논자의 논변에 대한 반박으로 유불선의 합일사상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성민 등의 저항은 다루지 않고 있음.
- 6-㉗: 태종의 불교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성민 등이 직소를 올린 기사를 전하며, 유학자들의 배불론을 척파하고 불교의 바른 뜻을

나타내기 위해 기화가 현정론 및 유석질의론을 찬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

㉔에는 배불에 대한 항거를 비교적 주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㉕의 경우 항거를 다루는 부분이 비교적 온순하고 성민의 항거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㉖는 불교배척론에 대한 항거와 더불어 염불결사를 통한 대중 속에 불교를 퍼뜨리려는 노력을 항거로 바라보는 현실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㉔는 기화의 반박을 유불선의 합일사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㉖고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척불에 대한 항거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척불의 시대에 그에 항거한 역사는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수행 터전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있지만 항거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결과 한국불교역사에 정법을 지키기 위한 순교 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 불교사학을 하는 이들에 의한 입문서에서는 유석질의론의 저자를 기화로 단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행자 내지 외부인의 불교사학 입문서에는 기화의 저서로 단정되고 있다. 유행자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의 특징은 '민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자의 관점을 지닌 사서에서는 민중이라는 용어조차 쓰이지 않고 있다. 특기할 것은 염불결사와 그 신앙을 나라와 유자들의 불교배척론에 항거하는 수단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탁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불교사의 주역은 왕후장상이나 고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불교 신앙의 대중인 민중과 불교 탄압의 전면에서 항거하는 승가라고 할 수 있다. 왕과 고승이 불교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내부자적인 관점의 사서를 지향하다 보면 교학이나 사상사 교단사 위주의 불교사학 입문서를 내놓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불교사의 주체를 놓치거나 불교사의 주류로 복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3. 통사 추구하고 그 거리

일반적으로 통사(通史)라고 하면 시대 구분 없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전 역사를 관통하는 사서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 한국불교통사류는 10여 명의 학자에 의해 30여 종이 등장하였다.<sup>33)</sup> 표면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한 듯이 보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상에 치중하여 사회적 접근을 외면해 왔다. 한국불교사에 대한 통사적 접근이 거의 없었으며, 총림불교에 중심을 두다 보니 민중불교가 소홀해졌다. 더욱이 승려와 교단의 비리나 파행에 대해서는 애써 기술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전체 한국사 속의 한국 불교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sup>34)</sup> 한국불교사를 제대로 기술하려면 문법과 방법, 사관과 주제, 주제와 쟁점, 학통과 인물과 한국사의 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분석 검토하여 기술해야 한다.<sup>35)</sup> 한국불교사 사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통사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통사로서 완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특정 한국불교사에 대해 통사로서의 완성도가 높다거나 낮다고 단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다만 각 불교사학 입문서의 특징을 통해 통사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실제의 거리를 기늩해 보고자 한다. 부분의 역사가 아니고 관통하며,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역사가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왕조시대를 넘어 관통하는 역사인가, 둘째 한국에 수용된 불교의

---

33)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p.16~21.

34)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 p.11.

35)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pp.61~62.



성격과 대중의 신앙이 관통하는 서술을 찾을 수 있는가, 셋째 불교의 주체들의 역할이 고루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왕조시대를 뛰어넘어 관통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불교사학 입문서는 왕조 시대와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㉔의 경우 삼국시대를 별도로 지칭하지 않고 ‘초기불교의 국가적 수용과 전개’라고 하여 그 시대의 특성을 드러낸다. 통일신라시대 불교를 ‘민족불교의 완성’이라고 하고, 고려시대 불교를 ‘기양적 경향의 불교’라고 하고, 조선시대 불교를 ‘산승 시대의 불교’라고 각 시대를 특징으로 의거하여 명명하고 있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 구토 일대에서 일어난 발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㉔는 남북국시대라고 하고 있고 ㉕조차도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라고 이국의 병립하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시각과 사뭇 다르다. ㉔는 ‘제1부 불교의 전래’, ‘제2부 화려한 신라의 불교사상’, ‘제3부 갈등과 새바람’, ‘제4부 불교정치술’, ‘제5부 반성하는 불교’, ‘제6부 팔만대장경의 힘’, ‘제7부 불교와 성리학’, ‘제8부 불교는 이단이다’, ‘제9부 불교정책의 이중성’, ‘제10부 호국불교와 민중불교’, ‘제11부 승려의 자유와 실천’, ‘제12부 식민지 시기 불교와 해방 이후의 불교’라고 하여 불교사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으며, 발해 불교는 다루지 않고 있다. ㉔는 왕조 별 시대의 불교의 불교를 서술하며 발해 불교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실천불교와 불교미술·불교의례에 등에 대해 간략하나마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에서 고찰하고 있는 불교사학 입문서 중심으로만 본다면 ㉔의 서술방식이 통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같은 방식으로 항목을 배치하여 서술하고 있는 ㉕나 ㉖도 통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㉕는 각 시대를 대분류하고 있고, ㉖는 불교사 100장면을 강조한 나머지 대분류한 흐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통사를 완성하려면 편장과 항목의 흐름이 일관성을 이루고 연결될 수 있

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한국에 수용된 불교의 성격과 대중의 신앙이 관통하는 서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보자. ㉔는 ‘초기불교의 국가적 수용과 전개’라고 불교의 성격이 국가불교적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이 민족불교를 나아갔다고 규명하고 있다. ㉔ 또한 우리나라 수용과 초기불교의 성격은 호국불교로 전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㉔가 국가[왕실] 불교적인 전개에 일반서민의 교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만 ㉔는 민중불교라고 하여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을 역사의 추동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㉔가 초지일관 민중을 일반서민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데 반해 ㉔는 불교의 성격을 민중불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신라말의 불교와 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민중과 미륵불교신앙을 내세우고 있다. 왕실귀족의 압제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은 불교의 변혁운동 주체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중불교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㉔가 한국불교통사를 서술하는 한결같은 방식이자 인식이다. 이에 비해 ㉔와 같은 유행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㉔는 역사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12부 59항 하나하나의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민중 속으로 퍼진 정토·약사·관음신앙이나 미륵 현세를 열망한 민중, 수선사의 결사운동과 백련결사, 위경의 등장과 원당 금지등을 통해 대중의 신앙에 대해 일관된 시선과 사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는 각 시대 불교의 하위 역사를 서술하면서 가장 먼저 제왕의 봉불행위와 정책 등을 다룸으로써 불교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통사를 추구하고 있는 불교사학 입문서들이 갖고 있는 거리와 한계가 적지 않게 실재한다고 보인다. 전반적으로 제왕과 고승 및 교단의 유지 측면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를 믿고 있는 신도가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없는데 대다수 입문서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령 “승려들을 동원하여 흥천사 사리각을 보수할 때,

도성 사람들은 일재(日齋)한다 하면서, 음식을 공궤(供饋)하는 자가 잇달아 끊임이 없었다. ‘일재’라는 것은 혹 하루를 한해서 혹은 한 끼니를 한해서 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며, 혹 한두 집 혹은 네다섯 집 혹은 수십 집이 공동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사람마다 경쟁하다시피 달려가며, 환자와 별감도 가끔은 임금의 명으로써 찬물(饌物)을 많이 가지고 가서 공궤하였다. 여러 대군과 군 및 재추(宰樞)로서 부처를 좋아하는 자와 부유한 장사치까지 모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공궤하였는데, 공궤하는 밥과 떡은 모두 한 동이로서 셈하며, 한 집에서 공궤한 것이 거의 백 동이나 되어, 산같이 쌓여 있었다. 공궤할 때에는 악공과 광대〔俳優〕들이 많이 모여서 향오에 따라 돌며 풍악을 연주하여서 중들을 즐겁게 하였는데, 이것을 ‘음성공양(音聲供養)’이라 하며, 중들은 길에서 뛰놀면서 미륵세계(彌勒世界)가 이로부터 나온다 하니, 유식한 자는 개탄(慨歎)하였다.”<sup>36)</sup> 고 하는 일재(日齋)에 관한 기사는, 불교가 유지되는 제일조건은 무엇보다 불교신도의 신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 〈진신수공〉 편에서도 확인되는 재승[공]<sup>37)</sup> 등 대중 신앙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통사는 잘 확인되지 않는데, 진정한 통사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불교 신앙의 성격과 수용되고 있는 현장의 특징들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불교의 주체들의 역할이 고루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부대중에 의해 불교가 유지된다고 할 때 사부대중이 각 시대와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추론할 필요가 있다. 민중 불교의 복원만이 제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를 추동하지 못

36) 『세종실록』 80, 세종 20년 2월 19일 계유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37) 『삼국유사』 〈진신수공〉 편

한 것을 역지로 민중불교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문해야 한다. 근대니 개화기니 하는 역사 인식은 오늘날 도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대 이전의 왕조 시대에서 갖는 사부대중 인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승의 역할과 국가의 정책이나 교단의 변천 위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교학과 교단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㉔·㉕는 주류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으므로 그 같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지만 ㉓·㉔는 민중과 장강과 같은 역사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은 통사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사회의 변혁세력이 되’고<sup>38)</sup>, ‘승려들의 생산활동과 민족자주의식의 성장’<sup>39)</sup>은 역사 주체를 새롭게 찾아내는 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주체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㉔·㉕가 취하고 있는 사관이나 인식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불교의 역사가 종파나 학파 교단만이 불교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그것은 불교는 그 자체가 배타성이 없고 응동보화(應同普化)의 걸림의 역사적 원리를 지니고 있으며<sup>40)</sup> 응동과 보화의 대상은 민중이고, 이 땅에서 불교를 신앙한 신남 신녀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다수 한국불교사학 입문서에는 불교역사의 주체들이 폭넓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불교 역사의 주체를 발굴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한국불교사를 읽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야만 한국 불교 통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경도된 관점을 지향할 때 불교 안팎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불교사학 입문서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한다.

38) 이이화, 『이야기 한국불교사』, pp.424~440.

39) 정의행, 『한국불교통사』, pp.353~354.

40) 김영태, 『한국불교사』, p.17.

#### IV. 맺는 말 [結語]

한국불교사학의 입문서에 대한 이전의 연구 성과를<sup>41)</sup> 뛰어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한 논자는 한국불교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1917년 이후 간행된 한국불교사학 입문서와 연구서나 자료집 등은 90여종 이상이 파악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그것들에 대해 불교사료의 집성기(集成期)라는 명칭으로 제시해보았고, 해방 이후 현대까지에 대해 불교사학의 정초기와 불교사화의 만발기로 구분하여 간행을 살펴보았다. 사료의 집성기는 일제라는 강점기의 특징 상 한국불교에 대한 외인 학자들의 일방적인 견해로 해석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한국 불교사가 기술되기 어려웠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료의 집성이라고 보았다. 해방 이후 불교사 연구가 이어졌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된 한국불교사학 입문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야 민중불교사가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이 시기는 현재 7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불교사학 입문서 정초기에는 불교사연구서가 붓물 터지듯이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불교사연구라는 전문학술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교사학 정초기라고 명칭 했다. 불교사학 정초기와 거의 같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후반에 이른 1990년대에 이르러서 불교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불교사회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출판문화와 사회경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불교사회 인물 불교

---

41) 고영섭은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에서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 등 14편과 기타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김순석은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에서 권상로, 이능화, 우정상·김영태, 김영태의 저서 4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용태 또한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에서 집성기부터 현대 정초기까지의 제 사서와 연구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 등이 등장했다. 불교사학 연구자를 비롯하여 불교 주변학자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불교사의 대중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행은 3기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이들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는 불교사학 입문서의 저자가 불교 내부자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김영태의 한국불교사(㉓)와 조계종교육의 한국불교사(㉔) 및 자현의 불교사 100장면(㉕)을 대상으로 삼았고, 둘째는 불교내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주류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에 거니는 유행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정의행의 한국불교통사(㉖)와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㉗) 및 임혜봉의 불교사 100장면(㉘)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셋째는 외부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마다 시계오의 한국불교사(㉙)를 대상으로 삼고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측면의 사화 선정과 그 거리를 보면 내부자 관점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역사 사료의 액면 그대로와 교학 사상과 고승들의 활동이 주라고 할 수 있고, 유행자의 유추가 설득력이 있었고 다양한 민중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며, 외부인의 관점은 유행자의 관점과 근사했다고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내부자의 관점은 긍정적인 측면 위주이고 그림자의 역사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다. 이에 비해 유행자의 관점 사서는 어용승려니 무위도식이니 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고, 외부인의 관점을 견지하는 사서는 사실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의 주체 복원과 그 거리를 보면 내부자 관점의 사서는 지나칠 정도로 고승 위주여서 여성 불자나 민중의 문제는 눈 돌리지 않고 있고, 유행자의 관점은 전직 승려출신과 순수 유행자의 관점의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였는데 육면 비의 염불서승을 다루는 것이 민중을 외면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었다. ㉕의 경우 여성 불자를 일부 전면에 등장하고는 있다. 배불의 항거 또한 내부자의 관점은 온건하나 유행자의

관점은 단호하고 염불결사를 배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남달랐으며, 외부인은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배불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인다. 불교사에 주체를 복원하는 문제를 위한 관점의 확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측면의 통사 추구와 그 거리를 보면 사서들의 차례를 통해서 보면 사화라고 할 수 있는 ㉔가 왕조를 뛰어넘어 관통하는 역사로 기술되고 있다고 보이며, 전체 사서들이 국가불교 호국 불교로 해석하나 ㉔만이 민중불교로 서술하고 있을 뿐인데 대체로 진정한 불교의 유지는 일제와 같은 불교 신앙인들의 신앙행위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행자 관점의 사서에서는 전통의 ‘견훤’을 ‘진훤’, ‘일행’선사를 ‘일행’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 한국불교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국어 내지 외래어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현실음(보디→보리) 어떤 경우는 현재 한자음(차데→차례의 次第를 차제로 표기하는 예)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음가의 표기를 사서에서 통일 내지 암묵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 주체들의 역할을 복원하여 온전한 불교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승 대덕의 학문과 선법활동과 같은 거시 담론에 간혀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땅에서 불교하는 이들의 삶-신앙의 방식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왜인가. 불교사는 불교의 역사가 종파나 학파 교단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응동보화(應同普化)하는’ 불교의 성격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온전한 불교통사는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세종실록』

『삼국유사』

사학 입문서 제시 생략.

고영섭,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체」,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김용태,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황인규, 「한국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서술과 고승」, 『한국불교사연구』 I, 한국불교연구소·한국불교사학회, 2012.



# The current state and analysis of the publication of the introduction to the Buddhist history

- Focusing on the viewpoint and the distance -

Lee, Seong-woon / Research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is writing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s to the Buddhist history from modern times to the present. These writings are classified into the agglomeration period of the Buddhist materials, the foundation period of the Buddhist historical studies and its full blossom period. The views of the authors are also further classified into those of the insider, the bystander and the outsider.

Firstly, when it comes to the selection of the materials of the Buddhist history and its distance, the viewpoint of the insider is positive, with the authors taking the materials at face value and mainly dealing with the activities of illustrious monks. The view of the bystander is persuasive. The bystander authors tend to restore a variety of histories of the public Buddhist, while criticizing government-patronized monks and their idle life. It seems that the viewpoint of the outsider is close to that of the

bystander and consistent in the factual description.

Secondly, in regarding to restoring its main agent and its distance, the insiders only focus on illustrious monks and are not interested in the female Buddhist and the issue of the public Buddhist. The viewpoint of the original bystand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mer monks. The view of the outsiders are relatively objective to anti-Buddhism.

Thirdly, as for Buddhist synoptic history and its distance, the historical story of Korean Buddhism has been narrated throughout history not just during the Joseon Dynasty. Korean Buddhism is characterized as Buddhism for national protection and the synoptic history of Korean Buddhism is as Korean public Buddhism. It passes unnoticed that the act of faith of Japanese Buddhists maintained authentic Buddhism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 whole history of Korean Buddhism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studies of illustrious monks and their activities but include the religious life of the public Buddhist in Korea.

**Key words :** Korean Buddhist history, the synoptic history of Korean Buddhism, the public Buddhist history, historical story of Korean Buddhism, the view of the bystander, Kim Yeongtae, Ko Yeongseop, Kamada Shigeo

원고접수: 2019-12-05	심사완료: 2019-12-15	게재확정: 2019-12-27
------------------	------------------	------------------